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지역 노인생활 협동조합의
설립 필요성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이 희 옥

2015年 8月

제주지역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설립 필요성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진 관 훈

이 희 옥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6월

이희옥의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⑩

위 원 _____ ⑩

위 원 _____ ⑩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2015년 7월

A study on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Jeju
Life Cooperatives seniors

Hi-ok Lee
(Supervised by professor Gwan-Hun Ji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cience

2015. 7.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
.....

.....

Major in Social Welfar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 초록>

제주지역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설립 필요성에 관한 연구

李 熙 玉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社會福祉專攻
指導教授 秦 寬 勳

본 논문은 제주지역 노인들의 자활을 위해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는 단순히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우리나라의 경제와 더불어 나라의 존립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준비되지 않은 급격한 초고령화 사회는 건강, 금전, 역할상실, 고독감 등으로 발생하는 노인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특히 노인의 경제적 문제는 은퇴 후 20여 년을 지내는 동안 고통과 함께 범죄로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전국 초고령화와 제주의 독특한 노인문화가 노인복지문제를 만들고 있다. 제주의 노인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을 통해서 새로운 노인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섬 지방인 제주지역 노인문화와 노후생활을 살펴보고 최고속의 고령화 사회도 진행되고 있는 노인 문제 중 제주지역 노인의 경제적 문제를 노인 스스로 해결하고자 다양한 접근 방법의 하나로 노인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연구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외국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사례를 고찰하고 국내 사례로는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을 방문하여 조합원 38명을 대상으로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에서의 활동 견해를 설문조사 하였고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 2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그중에 191부의 설문지를 수집하고 제주지역 노인의 전반적 사항과 노인생활협동조합과 관련하여 설문으로 조사하고 제주지역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설립에 대한 연구의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첫째, 제주 지역에 양질의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 창출이 절실히 요구된다.

직업을 주면 취업하고 싶다 61.8%, 노인생활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62.8%로 제주 지역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에 욕구가 높다.

61-70세, 70-80세 모두 합친 인원이 82.2%, 노인생활협동조합을 모른다는 답변이 80.1%.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경우가 80.2%, 노인생활협동조합 참여가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다 70.1%, 노후의 삶에 도움 될 것 같다 75.4%,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될 것 같다 60.2%로 일자리가 주어지면 돈을 벌 수 있으므로 노인 빈곤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생활방식으로 변화됨에 따라 활기찬 노후생활이 증가하는 효과고 일자리 참여가 건강유지에 도움이 되어 병원 가는 횟수가 줄어들어 의료비가 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다.

둘째, 노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조직을 결성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

2014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제주 노인 일자리 사업에 책정한 총예산은 8,826백만원(보건복지부, 2014), 민간 주도의 조직체를 결성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협동조합의 정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다(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원의 출자가 이루어져야 재정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생활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 출자 하겠다가 34%,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42.9%로 노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조직을 결성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제주 지역 노인 일자리 해결을 위한 대안을 지역사회에 널리 홍보가 필요하다.

협동조합의 특성은 자치적인 조직이며,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직이고, 조합원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생활협동조합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모른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80.1%,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을 위해서는 먼저 언론매체나 지역사회 토론회 등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볼 때 제주지역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제주지역 노인 재활을 위한 필요성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차 례

국문초록	i
차 례	iii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의 방법	2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4
1. 제주지역 노인문화의 특성	4
1) 제주지역의 고령화 추세	5
2) 제주 노인문화의 특성	9
2. 생활협동조합의 개념과 유형	12
1) 협동조합의 개념과 유형	12
2) 협동조합의 등장과 발달 과정	15
3) 생활협동조합의 원칙	16
3. 노인 협동생활협동조합의 개념과 외국의 사례	17
1) 노인생활협동조합의 개념	17
2) 일본의 고령자협동조합	18
3) 독일의 협동조합	19
4. 선행연구 고찰	21

III.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사례연구	24
1.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의 방침과 사업.....	24
1)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설립배경.....	24
2)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의 기본방향 및 목표.....	25
3)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조직.....	26
4)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의 방침.....	28
5)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사업.....	28
2.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운영사례	30
1) 조사자의 일반적 특성.....	30
2)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의 견해에 대한 조사내용.....	32
3)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 직원의 견해.....	38
IV. 제주지역 노인생활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	42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2
2. 조사대상자의 일반생활 분석 결과.....	44
3.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참여 의사 관련 분석 결과.....	45
4. 참여 이유와 참여 사업 관련 분석 결과.....	47
V. 결론 및 제언	49
1. 연구결과의 요약.....	49
2. 제언.....	51
참고 문헌.....	53
Abstract.....	55
부록.....	56

표 목차

<표 1> 제주지역 노인인구의 변화 현황.....	5
<표 2> 제주지역 노인의 일자리사업 현황.....	7
<표 3> 전국 및 제주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11
<표 4> 생활협동조합의 원칙.....	16
<표 5> 원주 노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요 연혁	27
<표 6>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주요사업.....	28
<표 7>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추진사업.....	29
<표 8>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취미/봉사.....	30
<표 9>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1
<표 10>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을 알게 된 동기.....	32
<표 11>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에 가입한 이유.....	33
<표 12>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의 가입기간.....	33
<표 13> 조합원들이 생활협동조합활동을 계속하는 이유.....	34
<표 14>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을 그만둔다면 그 이유.....	34
<표 15>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의 참가 사업 수.....	35
<표 16>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에 만족스러운 사업.....	35
<표 17>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 활동 후 변화.....	36
<표 18>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 일자리 창출의 과제.....	37
<표 19>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 가입 권유.....	37
<표 20>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이 활성화된 이유.....	38
<표 2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3
<표 22> 조사대상자의 전반적 사항.....	45
<표 23> 노인생활협동조합에의 참여의사에 관한 조사 내용.....	47
<표 24> 참여 이유와 참여 사업에 관한 조사 내용.....	48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지금 우리나라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 최고속의 고령사회로 진행하고 있다. 이제 노인의 문제는 당면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신속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노인복지정책은 아직 저소득층 빈곤과 병고에만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자녀나 국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노인 스스로 고령화에 따른 노인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을 통해서 새로운 노인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2014년 말 현재 제주도의 65세 노인 인구는 82,411명으로 제주도민 전체의 13.57%를 차지하며(안전행정부 인구현황, 2014), 노인 인구의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경제 상황에 직면한 노인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다. 제주지역 노인의 경제문제는 제주도, 제주 시니어 클럽, 종합고용지원센터, 고령자인재은행, 노인회에서 일자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노인 일자리 전문수행기관이 없으며 중앙정부 등에서 개발된 전국공통사업에 의존하는 실정이라서 제주지역 실정에 자조, 자립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독특한 노인문화가 있는 제주에서는 새로운 가치관에 입각한 사회운동, 즉 생활협동조합운동을 통해 노인들의 힘과 지혜로 노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상부상조 정신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협동조합은 새로운 사회복지 실천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자본주의라는 이름 아래 정당하다 여겨진 경쟁 속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고 사회적 가치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은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앞으로 노인 일자리 해결 방안은 노인생활협동조합을 통한 민간주도의 노인 일자리사업이 절실히 요구된다.

2. 연구의 목적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방법의 하나로 협동조합을 들 수 있다. 협동조합은 공동의 소유와 민주적 운영의 사업체로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자율적 조직이며 협동조합의 핵심 가치인 자조, 자립, 협동을 바탕으로 노인들의 힘과 지혜로 노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노인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안정된 삶을 만들어가는 차원에서 노인 스스로 풀어나가자는 차원의 자조적인 공동체 활동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생활협동조합의 기능과 역할을 알아보고 제주 노인생활협동조합 설립의 필요성과 설립과정에 문제점을 연구하여 제주 노인생활협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인들의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생활협동조합의 긍정적인 사회적 관심과 지역사회 노인복지에 이바지하고 차후 노인생활협동조합의 발전적인 활동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심층면접을 통한 사례연구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조사연구를 병행하여 실시했다.

제주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설립 필요성에 관한 연구는 먼저 생활협동조합에 관한 저서와 자료집을 통해 생활협동조합의 이해와 현황 및 활동내용을 알아보았고, 연구의 범위는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하고 제주도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연구를 하였다.

연구방법은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제8차 정기총회 회의 자료와 홍보물 등을 참고하여 살펴보고, 직접 방문하여 조합원 38명을 대상으로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의 활동과 사업 참여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고 상주직원에게는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과 관련한 견해를 인터뷰하였다.

제주지역 노인생활협동조합 설립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제주 노인문화와 노

후생활에 대하여 저서와 자료집을 참고로 하여 살펴보고 설문으로 조사하기 위해 4월 20일에 일차적으로 제주도에 거주하는 지인 중 30명 노인을 대상으로 표본링을 했다. 그다음에는 5월 2일부터 5월 26일까지 제주시 8개 경로당과 2곳의 아파트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회원 등 170명을 200명을 대상으로 노인생활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고 그 중 총 191부를 회수하여 조사연구를 하였다.

이처럼 조사한 자료들을 연구자의 관점으로 분석하여 제주지역의 노인생활협동조합 설립 필요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협동조합의 역사와 제주지역 노인문화와 노후생활의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제주지역의 노인생활협동조합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둘째, 생활협동조합의 개념과 유형을 알아보고 외국 생활협동조합의 사례와 국내 사례 중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의 방침과 사업, 그리고 운영사례를 조합원들과 상주직원들을 통해 살펴보기 위해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상주직원들에게는 인터뷰를 통해 조사 내용을 정리한다.

셋째, 제주지역 노인생활협동조합 설립이 제주지역 노인들의 자활에 필요한 것인지 설문지 내용을 만들어 제주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질문하여 답변 내용을 정리하고, 제주지역 노인생활협동조합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따라서 제주지역 노인생활협동의 설립 필요성에 관한 연구는 초고령사회에 직면하는 노인 문제 중에 노인의 경제문제를 스스로 해결 하고자 하는 방법이며, 또한 노인복지실천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제주지역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설립 필요성에 관한 연구는 세계적인 추세로 보아도 적합한 일이라 생각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1. 제주지역 노인문화의 특성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3년 말 현재 전체 인구의 12.2% 차지하며 2018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14.0%를 넘어 고령사회가 될 것이며, 2026년에는 20.0%로 초 고령 사회가 예상되고 있다(통계청, 2011). 고령사회에 노인 문제는 빈고(貧苦), 고독 고(孤獨 苦), 무위고(無爲 苦), 병고(病苦)를 말한다, 노인의 4고 중 노인빈곤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2012년 기준 노인 빈곤율은 48.0%(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빈곤통계연보)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빈곤율인 14.0%에 3.4배로 빈곤이 고령층에 집중되어 노인세대의 빈곤 및 소득 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반면 2060년에는 0~14세 유소년인구는 10.2%에 불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앞으로 2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형으로 변할 것이다(KOS, 장래인구추계).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생산 가능의 감소로 인해 일하는 세대의 노인부양부담이 증가로 인해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노인의 부양비 증가는 사회적 비용 부담 문제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고승한, 이소정, 2014).

이러한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를 국가의 미래와 노인복지 문제를 연계해서 접근해야 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 인구의 감소를 노인들의 퇴직연령 연장과 연금수령 지연으로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 사례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들 수 있다. 정부 주도의 보건복지부 주관 노인 일자리 사업은 첫째 공공서비스향상과 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공헌 형 사업과 둘째, 경륜과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형 사업, 셋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형 사업, 소규모 창업을 하는 시장진입 형과 수요처의 요구 때문에 파견하는 인력파견형 사업을 하고 있다(한국 노인인력개발원, 2012).

다음으로 사회적 육성을 통한 일자리 사업으로 2007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되면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다음은 이번 연구의 주제인 협동조합을 들 수 있는데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모든 결정 사항을 출자자는 무관하게 1인 1표제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을 들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에도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대두하면서 2012년에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이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1) 제주지역의 고령화 추세

① 제주지역의 노인 인구 변화

제주지역의 전체 인구는 2000년 이후 계속 증가하며, 2013년에는 60만이 넘어섰다. 제주지역 노인 인구의 변화 현황은 <표 1>과 같이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여 왔으며 2013년 12말 기준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13.1%를 넘어 조만간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80세와 85세 이상의 장수노인 인구비율이 증가추세를 보이거나 커다란 증감 변화는 없다. 특히 제주지역 85세 이상 인구는 2000년에 3,849명에서 2013년에 7,267명으로 증가하여 88.8%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8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증가는 100세 시대에 도래하고 있다.

<표 1> 제주지역 노인인구의 변화 현황 (단위: 명, %)

구분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01년	2012년	2013년
전체인구 (A)	542,368	567,569	597,913	571,255	576,156	592,449	604,670
65세 이상 인구(B)	43,334	55,795	66,702	69,641	72,580	76,060	79,455
80세 이상 인구(C)	8,313	10,437	12,589	13,700	14,536	15,762	17,405
85세 이상 인구(D)	3,849	4,538	6,261	6,549	6,617	6,942	7,267

B/A(%)	8.0	10.0	11.7	12.2	12.6	12.8	13.1
C/B(%)	19.2	18.7	18.8	19.7	20.0	20.7	21.9
D/B(%)	8.9	8.1	10.6	9.4	9.1	9.1	9.2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 각 년도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년도

제주 지역의 8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전국의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박삼욱 외(2007)의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40여 년 동안 전국에서 장수도(65세 이상 노인 인구 가운데 8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항상 1위를 차지해 우리나라에서 초고령사회임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제주지역 노후생활 안정화 정책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기초노령연금 등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과 지자체에서는 80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월 2만5천 원을 지원하는 장수수당이 있으나 이러한 지원은 실질적으로 노인의 경제에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사업도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지원이 불충분하다(고승한, 2014). 그리고 이러한 노후생활 안정화 정책 사업들은 주로 수급자 또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한정되어 있어, 고령사회 제주 노인들의 노인 빈곤문제는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② 제주의 노인 일자리 사업 현황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개발 및 향후 고령사회 대응 정책 개발을 위한 올바른 인식제고와 세대별 차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시급한 상황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은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득을 창출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중 고령자 대상 직접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으로서 보건복지부가 소관 부처이다.

우리나라 고령자 중 경제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비율이 38.5%(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노인실태조사)에 달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3년 31.4%로 나타났다(통계청 2013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러나 고령자의 높은 경제활동 참가수준에도 불구하고 고령사회로 갈수록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생산성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2010년부터 시작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노인율 및 노인 자살률 증가 등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의 증가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노인 문제에 대한 종합적 해결방안으로 노인 일자리사업을 정책적으로 도입하였다.

2014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제주 노인일자리 사업에 책정한 총예산은 8,8백만 원이다(보건복지부, 2014). 제주 노인 일자리 사업은 연중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유형으로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으로 구분되고, 공공분야 노인 일자리 사업은 9개월 지속되며 소득은 월 2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4).

<표 2> 제주지역 노인 일자리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예산 집행 액				일자리 제공 실적	
	계	국비	지방비	전년대비 증가(율)	일자리 수	전년대비 증가(율)
2013	6,931	3,416	3,515	2,265(48)	3,939	740(2.3%)
2012	4,666	2,333	2,333	778(20%)	3,199	522(19%)
2011	3,888	1,944	1,944	874(28%)	2,677	613(29%)
2010	3,014	1,507	1,507	-	2,604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2014.5

제주지역의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액이 <표 2>와 같이 2010년에 3백만 원이었으나, 2013년에 6,931백만 원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지난 4년 동안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액이 3,917백만 원이 증가하여 거의 130% 예산증가율을 보이고, 또한 지난 4년 동안 전년 대비 예산증가율이 71.4%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노인 일자리 사업비 지원에 따른 일자리 창출 실적을 보면, 2010년에 2,064개, 2011년 2,677개, 2012년 3,199개 그리고 2013년에 3,939개로 증가하였음. 지난 4년 동안 일자리 창출 증가율은 90.8%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일자리 증가율은 20.7%p 감소하였으나 2013년에는 전년 대비 23%가 증가하였다.

노인 일자리 및 노인고용 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활성화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한 가장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더욱 확충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표 2 참조).

노인 일자리 사업에 주력하는 이유는 2009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듯 노인 일자리 참여로 첫째, 돈을 벌 수 있으므로 노인 빈곤율이 6.1%나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는 TV 시청 등 소극적 여가활동은 축소되고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생활방식으로 변화됨에 따라 활기찬 노후생활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세 번째는 일자리 참여가 건강유지에 도움이 되어 병원가는 횟수가 줄어들어 의료비가 절감됐다. 네 번째는 다양한 사회활동 증가로 사회관계 개선과 특히 가족관계가 호전되는 등 1석 4조의 효과를 가져왔다.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한 노인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한국 노인인력개발원, 광역 및 기초지자체,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의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2004년에 시행하여 1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도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지역 어르신들에게 그 효과가 정확히 나타날 것이다. 지역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참여 노인의 성실한 참여와 해당 지역 기관들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일자리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의 역할도 중요하다. 매년 수립하는 사업 기본계획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우수 일자리 아 이템이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외에도 지역경제에 도움 되는 다양한 일자리사업이 지역에 유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제주 노인문화의 특성

제주지역 노인들은 고령자가 되어서도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제적으로 자립생활을 영위하고, 아울러 건강과 여가생활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사실상, 제주 노인들은 독특한 노동문화를 가져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면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노후생활의 안정화와 독립적 생활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승환·황은주, 2010). 제주 지역의 노인과 관련한 독특한 문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제주의 분가제도

제주도는 육지와 달리 자식이 결혼하게 되면 철저하게 분가하는 가족제도가 있다. 자식이 결혼하면 부모와 자식은 취사를 따로 할 뿐만 아니라 경지를 나누어 독자적으로 생산하였다. 섬이라는 특수한 지형에서 물자가 부족해서 대가족보다는 핵가족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평소에는 부부 중심의 생활을 하다가 일손이 부족하거나 큰일을 치를 때는 수 놓음과 권 당 문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다. 육지의 시선으로 보면 한집에 살면서도 안 거리 밖 거리에서 각각 따로 밥을 해먹는 것이 야박하게 느껴질 수 있다.

80세가 넘는 노모도 혼자 밥을 지어서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하지만 밭일과 물질로 바쁘게 사는 제주 여성들은 같이 모여 밥을 먹는 것이 오히려 비능률적이었다. 이러한 분가제도는 부모와 자식 간에 독립적인 삶이 강조되어서 결혼한 자식들은 철저하게 자립을 해야 했고 부모 역시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이상 자식에게 의지 않아 일자리가 주어지면 노인 스스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제주 노인의 문화로 볼 수 있다(김시윤, 2015).

② 제주의 품앗이 “수 놓음” 정신

예전부터 제주에서는 농사일이 바쁠 때 이웃끼리 서로 도와 일하는 제주지역의 품앗이인 수 놓음이라는 풍속이 있었고 지금도 그 정신이 이어지고 있다.

척박한 땅에서 고난을 이겨나가는데 필요로 하는 시대적 환경에서 저절로 만들어진 문화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회구조가 복잡 다양화되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살아 나가기 위한 시대에서는 수 놓음 정신은 필요했다. 척박한 땅을 일구

며 농작물을 재배해야 하는 밭농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제주지역의 수 논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강인함의 상징인 제주 여성들이 거의 모든 밭일을 맡다시피 하다 보니 제주 여성들은 수 논음을 통해 농사를 지으며 생활했다.

열 사람이 각자 자기 밭에서 열흘 동안 해야 할 일을 여러 사람이 모여 닷새 만에 일을 마칠 수 있었다. 이러한 수 논음의 문화는 점차 사라져 가고 있으나 아직도 제주의 농·어촌에서는 노인들을 중심으로 문화로 남아 있으며 제주의 공동체 문화인 수 논음은 밭일뿐만 아니라, 마을에 경조사에도 그 힘이 발휘되었다. 제주도민의 공동체 정신인 수 논음은 척박한 제주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힘의 원천이었으며 제주 노인들이 노후에도 스스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 하는 노후 생활의 특징인 노인들의 문화로 이어지고 있다.

③ 제주 노인의 경제적 문제

제주지역 노인 2명 중 1명은 생계유지를 위해 자신 또는 배우자가 돈을 벌거나 자식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주발전연구원의 조사한 결과 제주지역 노인의 41.06%가 자신 또는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주 수입원으로 삼고 있다고 분석했다. 생활비 부담에 있어 노인이 주체가 되는 경우도 57.5%나 됐다. 생활비 부족(14.7%)보다는 건강이 나빠(36.2%) 생활이 어렵다고 밝혔다(고승환, 이노정, 2014).

직업별로는 농·수·축산업에 종사(32.3%)하거나 경영·관리직(1.5%), 자영업(6.2%) 등 ‘일’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 비해 단순기술 생산직, 판매 및 서비스직, 단순 일용직, 유급 자원봉사 등 임시·계약직 비중(51.9%)이 높게 나타났다(고승환, 이소정, 2014).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절실하다.

④ 농촌에 치우친 노인일자리

제주지역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소득 창출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주도의 제주 노인일자리 사업은 연중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유형으로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 파견형으로 구분되고, 공공분야 노인 일자리 사업은 9

개월 동안 지속하며 소득은 월 20만 원으로 한정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2).

<표 3> 전국 및 제주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단위: 명, %)

구분		2005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국	15세이상	62.0	61.5	60.8	61.0	61.1	61.3	61.5
	65세이상	30.0	30.0	30.1	239.4	29.5	30.7	31.4
제주	15세이상	70.0	68.8	67.8	66.0	66.9	67.3	67.1
	65세이상	48.6	46.0	48.1	44.8	42.0	43.2	45.0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표 3> 과 같이 전국 및 제주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제주 노인들이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5%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반면 전국의 경우는 30%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 노인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것은 제주지역의 산업구조 여건 때문으로 보인다. 제주에서 농업부문이 전체 산업구조에 거의 18%를 차지하고 있고,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 노인들은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면 나이가 들어도 밭농사(마늘, 당근, 감자, 양파 등) 혹은 과수농사(밀감)에 참여하는데 쉽다.

이처럼 제주 노인들이 경제활동을 참가하는 높은 비율은 높은 고용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 노인들의 고용률이 거의 45% 수준을 웃돌고 있으며, 전국 노인 평균 고용률은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제주 노인이 전국의 노인들보다 무려 15%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제주지역의 산업적 특성과 노인의 노동문화가 결합하여 제주 노인들이 나이가 들어도 과수원(혹은 밭)이 있으면 대부분 영농활동에 의하여 경제적 자립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제주의 노인문화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독립적인 삶이 강조되어서 결혼한 자식들은 자립해야 했다. 부모 역시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이상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아 일자리가 주어지면 노인 스스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제주의 분가제도와 척박한 제주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힘의 원천이었다.

공동체 정신인 수 놓음은 제주 노인들이 노후에도 스스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제주지역 노인의 노후생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의 가치로 여기는 자조, 자기 책임, 민주, 평등, 형평성과 일맥상통하며, 협동조합의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며, 조합원은 협동조합 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하는 노인생활협동조합의 긍정적인 사회적 관심과 지역사회 노인복지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노인생활협동조합의 발전적인 활동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생활협동조합의 개념과 유형

1) 협동조합의 개념과 유형

협동조합 기본법에 협동조합의 정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다(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조합원) 경제·문화·사회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이다.

협동조합의 가치는 자조, 자기 책임, 민주, 평등, 형평성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며, 조합원은 협동조합 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한다.

협동조합의 특성은 자치적인 조직이며,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직이고, 조합원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① 협동조합의 주체와 기능에 따른 형태

첫째, 소비자협동조합은 신용을 바탕으로 양질의 식품이나 생활물자를 유통하고 생필품 시장의 독과점 폭리에 맞서 협동조합을 것은 시초로 소비자(조합원)에게 믿을 수 있고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지속해서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며, 한국의

한 살림과 아이쿱 생협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 신용협동조합은 고리대자본을 배격하고 경제적 약자 간의 자금 유통과 협동조합사업을 지원하고 조합원들 간 지역, 직업, 종교 등의 상호 위대를 통해 자금의 조성이나 이용을 도모하는 비영리 금융기관으로 공동으로 목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조합원들 간에 신용으로 유통할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은 독일에서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 이후 산업화과정에서 상업자본가들에 의한 고리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영세 독립 소 생산자들과 농촌 소작농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자 등장했다.

셋째, 생산자 협동조합은 영세사업자가 협력하여 대형 기업을 비롯한 영리기업에 맞서기 위해 결성한 것으로 농업협동조합이 대표적이다. 농협은 농산물 가격의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공동구매로 단가와 마케팅 비용을 낮추는 등 시장과 교섭하고 공동행동에 나선다. 주체에 따라 산림조합과 어업협동조합이 있다.

넷째, 노동자협동조합은 1990년대 이후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급여 인상 및 노동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노동자 협동조합을 결성했다. 같은 업종이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되며, 전공별로 협동조합을 결성했다.

다섯째, 사회적 협동조합은 1960년대 이탈리아에서 처음 생겨났으며, 1991년 사회적 협동조합이 제정된 이후 사회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 공용을 목적으로 기존 정부기관 지원만으로 사회복지를 수행하는 데 한계를 가진 비영리 단체들이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여섯째, 서비스협동조합으로는 보험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육아협동조합 등이 있고 일곱 번째, 특수협동조합의 형태로 장애인협동조합, 노인협동조합 등 같은 욕구와 동질성을 가진 기능을 하는 협동조합들이 있다.

기능과 형태에 따라 분류되는 협동조합의 유형 중 생활협동조합에 정의를 살펴보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조합법에 따르면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생산자, 소비자들의 자발적 협동조합으로 생산자, 소비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비영리 조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개념으로는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조합원) 경제·문화·사회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으로 정의한다.

② 생활협동조합의 유형

생활협동조합의 유형은 지역생활협동조합, 직장생활협동조합, 단체생활협동조합, 학교생활협동조합으로 4가지로 구분한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회).

첫째, 지역생활협동조합은 지역구를 중심으로 사업하는 생활협동조합이며 주소에 따라 조합원자격을 얻게 된다.

둘째, 직장생활협동조합은 직장의 모든 직원이 조합원이 되며, 직장과 직장의 부설기관까지 사업구역으로 운영되었다.

셋째, 단체 생활협동조합은 비영리 단체의 회원 또는 교회, 사찰 등의 신도들을 조합원으로 한 생활협동조합으로 전국에 걸쳐 지역별 조합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넷째, 학교생활협동조합은 캠퍼스는 물론 학교의 부설기관까지도 포함한 생활협동조합이다.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생겨나면서 협동조합들은 일반적인 장점은 원가구매가 가능하고 독과점 횡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품질을 속일 수 없으며 (경제) 위기에 강하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고 단점으로는 자본을 모으기 어렵고 무임승차가 발생하며 민주적으로 관리하는데 비용이 든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유형별 협동조합의 장단점

소비자협동조합의 경우 원가에 가까운 경영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노동자협동조합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직원의 노동 착취 보호, 노동 생산성 향상 면에서는 노동자협동조합이 장점이 될 것이다.

협동조합 다수를 차지하는 사업자협동조합은, 원가 경영보다는 서비스나 상품을 더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공동구매나 마케팅 활동이 핵심이다. 협동조합은 1인 1표에 의한 참여한 공동 생산 방식이어서 수혜 대상자의 존엄성과 평등성이 향상되고, 참여자의 민주적 역량을 키울 수 있다.

협동조합의 핵심적 단점은 소액의 출자금과 조합원들의 다양한 생각을 모으는 것이 과제이다. 그러한 단점을 극복한다면, 협동조합의 성공률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2) 생활협동조합의 등장과 발달과정

협동조합의 탄생 배경은 18세기, 프랑스혁명 이후 근대자본주의가 형성되면서 새로운 계급이 생겨나고, 자본주의 결과로써 대량생산을 통한 경제적 발전은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으나 인간소외 현상이 발생하고 대자본가들로부터 압박과 착취에 대한 방어책으로 조직체가 필요하면서 근대의 협동조합이 생겨났다.

협동조합의 출현은 공동체운동과 함께 했으며, 협동조합과 생활협동조합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근대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의 발달과 시작되었고 최초의 협동조합은 1844년 잉글랜드 맨체스터 근방 작은 읍 로치데일에서 세계 최초의 협동조합인 ‘로치데일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이 조합은 현재 영국 최대 생활협동조합인 ‘코오퍼러티브 그룹’으로 이어지고 있다. 로치데일의 성공 이후 각국의 사회 경제적 특성에 따라 영국에서는 노동자 소비조합, 프랑스에서는 뷔세나 생시몽의 영향을 받은 노동자 생산조합과 푸리에의 영향을 받은 농협 협동조합, 독일에서는 라이파이션에 의한 농촌신용조합, 슐체에 의한 도시 신용협동조합이 발전하게 되었다.

오늘날의 협동조합은 다양한 조직들이 활동영역을 확대하면서 스스로 가치와 참여를 강화하면서 협동조합의 본래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협동조합의 활동은 민주적이고 참여의 절차를 통해 공정성과 평등을 향상하고, 교육, 훈련, 사회개발에 이바지하며 지역사회 문제를 수용하고 개선해나가고 있다. 오늘날의 생활협동조합운동은 초기의 유통구조 운동을 넘어 식품안전의 문제, 친환경 농업, 생명산업의 증대, 공존을 위한 소비 등이 생활협동조합의 역할이다.

우리나라의 생활협동조합 형성은 1970년대 강원도 원주에서 신용조합 활동가들에 의해 태동하였고 1983년 52개 조합이 참여한 “소비자 협동조합 중앙회”의 창립으로 협동조합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유기농 식품의 직거래를 목적으로 한 협동조합운동은 1999년에 소비자협동조합법이 시행되면서 다양한 협동조합이 계속 생겨났다.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경영의 자립능력을 갖추는 것이 시장 주의의 경쟁에서 존립하는 방법이다.

협동조합의 핵심가치는 자조 자립을 위한 협동이다. 자조 자립이 모자란 협동조

합은 식물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혼자 이룰 수 없는 자치나 목적을 위해 부족한 능력을 모으는 수단이며, 봉사 단체나 복지단체가 아니므로 무상의 지원에 의지하지 않고 조합원 간에 소통과 연대의식으로 자조 자립 협동의 가치를 중시해야 협동조합은 존속된다.

3) 생활협동조합의 원칙 (ICA 1995)

생활협동조합의 원칙은 협동조합의 국제조직인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맨체스터 총회에서 만들어졌다. 채택된 생활협동조합의 원칙은 <표 4>와 같이 7가지이다.

<표 4> 생활협동조합의 원칙

원칙	내용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4	자율과 독립
5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6	협동조합간의 협동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출처 : ICA 1995

제1원칙은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로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협동조합은 자발적으로 조직되고 사회적,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으로 조합원이면 누구에게나 개방된다.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협동조합은 제2원칙에 의하여 조합원에 의해 관리되는 민주적 조직으로서,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게 된다.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

권(1인 1표)을 행사하여 참여한다.

또한, 협동조합의 자본조달은 제3원칙에 의하여 조합원들의 공동으로 출자하며 출자액에 따라 배당을 받으며, 잉여금 일부는 조합원 공동의 편의를 위해 지원하기도 한다.

제4원칙은 자율과 독립에 대하여 협동조합은 정부나 다른 조직과 연계를 하거나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때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은 제5원칙에 의하여 “교육으로 시작해서 교육으로 끝난다.”는 말처럼 교육으로 받아들여지는 정보가 조합원들을 민주적인 훈련으로 협동조합을 발전시킨다. 일상생활, 경제생활에서 협동의 정신으로 살아가기 위해 지속적인 학습과 교육이 필요하며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협동조합 운영을 투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원칙은 협동조합 간의 협동으로 지역 간 그리고 인접 국가 간에 협동이 강조된다. 협동조합 간의 협동은 1966년에 포함된 원칙으로 그 이유는 1960년대 들어 다국적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는 상황에 직면하여 협동조합들도 상호 간의 협동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려고 했던 데에 있다.

마지막으로 제7원칙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로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이다. 협동조합은 지역사회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개선해나가는 노력을 한다.

오랜 세월 동안 협동조합을 하면서 성공과 실패의 경험에서 나온 7대 원칙은 평범한 용어인 것 같지만, 그 속에는 곱새겨야 할 내용임은 분명하다. 조합원들의 힘을 끊임없이 모아야 하며, 참여를 주저할 때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를 끊임없이 연구해야만 하는 일이 쉬운 것만은 아닐 것이다.

3. 노인생활협동조합의 개념과 외국의 사례

1) 노인생활협동조합의 개념

고령화 사회에 노인 문제는 곧 노인빈곤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노인빈곤

문제를 정부나 지자체에 의존하지 않고 노인 스스로 해결하고자 생활협동조합의 주체가 노인조합원으로 지역생활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된 것이 노인생활협동조합이다.

새로운 가치관에 입각한 사회운동인 노인생활협동조합운동을 통해 노인들의 힘과 지혜로 노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며 노인의 안정된 삶을 만들고 스스로 자립하는 노인복지를 추구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운동이다(권용원, 2015).

2) 일본의 고령자협동조합

고령자협동조합은 노인들이 출자하여 생활에 필요한 물자나 서비스를 공동 구입하고, 생활학교나 문화 오락 활동을 즐기며, 이용요금과 관리비까지 조합원들이 스스로 결정하여 관리하는 협동조합이다. 고령자협동조합의 노인 조합원은 가정봉사원으로서 다른 병약한 노인을 돌보는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에 참여하거나, 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가정으로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등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유급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한다.

일본 고령자협동조합의 특징은 첫째 고령자가 더는 ‘복지수혜’의 대상이 아니라 생활과 사회의 ‘주체’로 등장한 협동조합이라는 점이고, 둘째 생산이나 소비협동조합의 영역을 벗어나 자기 지역에서 ‘일, 복지, 사는 보람’을 종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이다. 셋째 구성주체의 면에서 농민이나 소비자처럼 어느 한 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물자·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과 공급받는 사람이 함께 조합을 구성하는 복합 협동조합이라는 점이며, 넷째 ‘관료적 공공성’에 비교하여 시민 자신이 참가하고 결정하며 자율과 협동을 촉진하는 시민적 공공성을 가진 협동조합이라는 점이다. 고령화 추세에 발맞춘 고령자협동조합은 주목된다.

일본 또한 고령자생활협동조합이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하지만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어느 정도 틀을 갖추었다. 일본의 고령자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노인복지서비스는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교하게 다듬는다면 우리 사회가 당면한 노인복지서비스를 해결은 물론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기대된다.

일본 고령자생활협동조합은 정년이 없다. 일반적으로 70세까지 일을 할 수 있으

며 건강이 허락하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

고령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을 첫째 나이가 들었다고 그대로 누워 있지 않게 하며, 둘째 건강한 노년을 더욱 건강하게, 그리고 노인 혼자 외롭게 내버려두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해 일하면서 돈을 벌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복지, 그리고 음악과 취미활동을 통해 살아가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노년을 위한 것이다.

일본 전체적으로 고령자생활협동조합은 22개소가 운영 중이다. 조합원의 연령제한은 없다. 고령자를 위한 사회를 지향하는 협동조합이기에 나이는 관계치 않는다. 그래서 40~50대도 조합원으로 활동한다. 먼저 조합원이 되려면 1인당 5,000엔의 출자금을 내야하며 300명 이상이 되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일본의 고령자생활협동조합은 법적으로 전체 고령 인구의 1% 조합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 30만 명이 목표다.

고령자생활협동조합의 확산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민간 기업은 복지 분야 사업에서 고령자생활협동조합과 종종 충돌하고 있다. 고령자생활협동조합은 여기에 공동 대응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협동조합과 연대하고 있다. 공동사업 영역을 발굴하기 위해 같은 건물에 사무실을 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고령자생활협동조합이 가장 먼저 설립된 것은 1994년 미에 켄(三重)이다.

고령자생활협동조합은 돈보다는 보람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비용과 서비스의 균형은 어느 정도인지 시행착오를 통해 정부 보조금을 산정하고 종사자 급여 수준을 책정하고 있다. 협동조합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를 해결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사회단체 도움으로 해결하는 데 그치고 있다. 사회복지업무를 민간에 언제까지 떠넘길 수는 없다. 협동조합 방식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일본의 사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임병식, 2014).

3) 독일의 고령자협동조합

독일에서는 주 정부의 선도 아래 노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노인복지 방안으로 고령자 협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1991년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는

노인의 상호 부조를 통하여 운영되는 고령자협동조합을 10개 발족하였다. 고령자협동조합을 발족한 배경은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이에 따른 노인 상호부조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었다.

기존의 공적 복지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제한적이라서 이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의 수나 서비스의 내용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독일 고령자협동조합의 특징을 보면, 조직 구조면에서는 노인들 간의 상호부조라는 협동조합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지만, 기능 면에서는 노인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정부 및 노인복지 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령자협동조합은 노인의 일상생활 및 주거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의 공적 서비스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고령자협동조합은 간호단체, 노인 자조 그룹, 복지단체, 영리단체 등 다른 단체와 제휴를 하는 것이다.

조합원은 조합에 대해 출자금 및 회비를 내고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조합의 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는 조합에 이용료를 지급한다. 바덴 뷔르템베르크주의 가장 대표적인 고령자협동조합으로 ‘리드링겐 고령자협동조합’을 들 수 있다. 이 조합은 조합원의 증가율이 높고 사업 활동이 가장 활발히 조합이다. 조합의 사업 내용을 보면 일상생활의 가사보조서비스, 임종봉사서비스, 교통편의 서비스, 도시락 가정배달 서비스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를 노인들이 상호부조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리드링겐 고령자협동조합의 특징은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자금과 시간의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자금 관리방법을 보면, 조합원은 받은 서비스에 대하여 요금을 지급하고, 서비스 제공자는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다. 총 지출액은 수입액과 대략 일치하며, 기부금 및 보조금으로 조합을 운영하고, 조합원이 내는 연회비(개인 60마르크, 부부 90마르크) 수입은 적립한다.

시간 관리방법이란 조합원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저축 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서비스를 제공한 조합원은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보수를 받는 대신에 자신의 계좌에서 시간으로 저축해 두고, 후에 필요하면 찾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장래에 조합원의 확보가 곤란하여 노인이 시간 저축에 대한

서비스를 교환할 수 없게 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시간당 일정액의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다(Blog.naver.wvdtla9).

4. 선행연구 고찰

생활협동조합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본 연구가 지향하는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설립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없었다. 그러나 협동조합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고찰해 보면 먼저, 지역생활협동조합의 성장단계를 구분하고 그 특징 및 과제 도출을 통해 지역생활협동조합의 성장단계별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연구로 우리나라 지역생활협동조합은 성장기에 있어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이며 지역생활협동조합은 분화 및 전문화를 위한 발전전략 수립을 통해 지역 내 관계 형성 및 자원 조직화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및 평가를 통해 지역생활협동조합 활동의 반경을 넓히고 지역복지의 관계에 대한 교육은 조합 활동의 참다운 동력이 될 것이며 지역사회복지 실현의 주체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하였다(이미연, 2008).

다음으로 생활협동조합에 가입한 구성원 집단과 생활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구성원 집단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사회적 연결감, 구매의도, 생활협동조합의 이미지 조절효과로 알아보고 향후 생활협동조합의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사회적 책임활동을 경영방안을 제안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연결감과 유기농 식품의 구매의도 및 생활협동조합 이미지에 관한 영향력을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마케팅 관점에서 연구하였다(장현정, 2012).

그리고 생활협동조합의 지역사회 주민공동체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에서는 요보호대상자 및 지역주민들의 범주민적 운동은 이들이 인간답고 바람직한 생존 및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복지공동체의 형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은임, 2000).

다음 선행연구에서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에 관한 연구로 사회적 기업 중 일부가 협동조합 형태로 전환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전환이 더욱 가속화된다고 볼 때 두 법제 간에 서로 조직형태, 권리에서 상충할 수 있는 점은 없는지 등

을 살펴봄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제정하여 사회적 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있다(구자근, 2014).

현재 급성장하고 조직적 변화를 겪고 있는 생활협동조합의 공동체 의식 수준을 측정함으로써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생활협동조합의 조직적 특성과 조합원의 특성이 생활협동조합이 지향하는 공동체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도·농 교류형 생활협동조합 공동체적 특징에 관한 연구가 있다(이재석, 2005).

다음 선행연구는 최근 협동조합은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초기 생활협동조합은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직거래라는 매개체의 한계와 조합원의 소극적인 참여 등 그리고 전국조직망을 이루면서 생활협동조합의 기본적인 지역성(locality) 개념이 희석되어 가는 상황에 도달했다.

따라서 외국 및 한국의 협동조합의 흐름을 파악하고 성공적 정착사례를 보인 생활협동조합의 핵심적 가치가 무엇인지, 어떠한 요인이 협동조합의 정착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사회운동 관점에서 분석했다(김상희, 2013).

그리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있는 평화의료생활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역사회조직의 원칙이 조직화 과정의 각 단계에 따른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규명하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에 따라 일상적인 실천 활동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조직하면서 기반을 강화하고 있는 민간 비영리조직인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사례연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의료생활협동조합이 시작 단계에 있지만 의료 생활 협동조합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양심적인 의료인들, 지역사회수준에서 사회복지실천을 전개하려는 사회복지인들,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조직, 농민·노동자 조직 등 저변 층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의료생활협동조합이 뚜렷한 전망과 실천전략을 가진다면 지역사회실천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연구하였다(박양희, 2000).

다음의 선행연구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노인생활협동조합에 관한 연구이다.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노인생활협동조합의 노인복지 기여에 관한 연구로 첫째, 협동조합의 역사와 지역적 배경, 원주의 지역적 특성, 협동조합의 발전과정과 성공 요인을 알아보고, 둘째,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설립

과 사업내용, 그리고 조합원들의 원주노인생활협동조합에 관한 생각을 연구했다. 현대 사회 노인들의 근로 욕구의 대안으로 노인생활협동조합은 더운 나은 노후 생활과 지역의 노인복지에 기여한다는 결론이다(변정원, 2009).

선행연구의 고찰에 의하면 UN은 2012년을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소비자협동조합법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역사는 30여 년이 되었다.

2013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에는 4,879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지만 지역사회 복지의 관점에서 본 생활협동조합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특히 지역사회 노인 복지를 사회적 경제의 대안으로 창립된 노인생활협동조합은 유일하게 하나 뿐인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이다.

불특정 다수가 모여 같은 뜻을 이루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노인복지 정책은 아직 저소득층 빈곤과 병고에만 머물러 있는 상태이므로 자녀나 국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노인 스스로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을 통해서 새로운 노인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자조, 자립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은 공동의 소유와 민주적 운영의 사업체로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자율적 조직이며 협동조합의 핵심 가치인 자조, 자립, 협동을 바탕으로 노인들의 힘과 지혜로 노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노인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안정된 삶을 만들어가는 차원에서 노인 스스로 풀어나가자는 차원의 자조적인 공동체 활동이다.

Ⅲ. 원주노인생활협동조합의 사례연구

1.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의 방침과 사업

원주지역의 생활협동조합은 30여 년이 넘는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군사정권, 신자유주의의 확산, 경제위기 등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계속 생겨났다.

협동조합의 필요성은 저소득층의 확산, 영세 상인들의 몰락, 그리고 농업이 급속히 몰락하면서 원주 또한 고령화 사회의 도래는 주민복지 개선을 위한 보다 근원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1972년에 창립된 밝음신협을 중심으로 시작된 원주지역의 소비자협동조합의 발전과정은 1983년 52개 협동조합이 참여하여 소비자협동조합 중앙회 창립되었고 1988년 한 살림공동체 소비자협동조합의 설립 되면서 본격적인 협동조합 운동이 시작되었다. 2014년 12월 현재 원주시에 협동조합은 47개이며 그 중에 사회협동조합은 6개이다(원주시청, 협동조합담당).

현재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들의 힘과 지혜로 노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상부상조 정신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협동조합은 새로운 사회복지 실천의 모델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생활협동조합은 2006년에 설립되어 유일하게 활동을 하고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 하나뿐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하여 본 연구의 사례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1)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설립배경

원주노인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의 배경은 원주지역 노인들 스스로가 문제를 풀어 나가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창출하며 건강을 지키고 사회에 봉사도 하고 아울러 국가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일을 스스로 해결하여 경제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 하며 남은 삶을 값지고 즐겁게 생활하여 더 이상 젊은이의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 가족과 함께 노인복지의 틀을 만들어 이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해 나가도록 함에 있다(권용원 이사장 구술).

원주노인생활협동조합의 최초 설립 당시에 박태진 2대 이사장님께서서는 대성고등학교 선후배들이 평소 노인 문제에 깊은 관심을 두고 고민하던 중에 일본을 방문할 기회가 주어졌고, 그곳에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 관련 단체를 살펴보고 배우면서 느낀 바가 참으로 많았다.

새로운 가치관에 입각한 사회운동, 생활협동조합운동을 통해 노인들의 힘과 지혜로 노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노인사회를 건전하게 만들고 안정된 삶을 만드는 것이라는 일념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므로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게 함은 물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물려주어 다음 세대들이 아름답고 건실한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도와주는 일을 펼쳐 나가는 것이다.

노인들에게 힘을 실어 드리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행복한 일자리를 찾아 드림으로써 스스로 자립하는 노인복지를 추구하여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 고자 한다.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은 안정적인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경제적 자립능력의 육성과 함께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바람직한 노인문화조성을 위하여 2006년 9월 1일 우리나라 최초로 창립되어 2014년 12월 현재, 권용원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1,865명 조합원이 설립취지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의 기본방향 및 목표

노인생활협동조합 운영은 민주적이고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확립하여 책임 있는 경영으로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여 지역과 국가에 공헌함은 물론 공신력을 증진해 조합원의 복지와 우의를 도모하는 데 주력하며, 기본방침은 기본방향에 입각한 기획, 조직, 관리, 조사연구 및 교육, 홍보 등을 통한 참여의식을 높이며 건강유지를 위한 여가 및 화 활동을 전개,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조합원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아울러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로 노인들의 생활 경제적 자립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 ‘행복한 노후생활을 구현’하고자함이 목표이다(원주노인생활협동조합 홈페이지).

3)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조직

조직은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국장(1명) 부장(2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조합원들은 자율적 사업추진, 회원관리 및 교육, 홍보, 전문지식 세미나개최,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단체와 유대강화, 자체능력개발팀 운영 등으로 활동하여, 조합원 중심의 운영을 시도하고 있다(원주노인생활협동조합 홈페이지).

노인생활협동조합의 가입자격은 원주 황성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절차는 먼저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출자금으로 1인 1좌 이상(1좌:10,000만 원) 출자를 해야 하고 5천 원의 가입비를 납부하면 조합원 가입 승인에 의해서 가입을 할 수 있다(원주노인생활협동조합 홈페이지). 조합원의 혜택은 적절한 일자리 취업, 각종 교육프로그램 및 취미교실에 참여, 다양한 활동 기회제공,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된다.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 각자가 주인이며 이용자이고 운영자이며 이익금의 2/3 이상을 일자리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회에 환원하는 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이다(원주노인생활협동조합 홈페이지).

일자리 신청은 노인 생활협동조합 사무실에 취업신청을 하면 면접을 한 후 적합한 일자리로 취업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때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의 자격교육이수자격증을 취득하게 한 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구인신청을 원할 경우에도 조합에 상담을 신청한 후 그에 적합한 도우미를 면접하여 연결하여 주게 된다. 취업조합원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소양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원주노인생활협동조합 홈페이지).

원주 노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요 연혁은 <표 5>와 같다. 2005년 9월 노인생활협동조합 설립준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1년 후의 창립을 준비하면서 2006년 9월에 조합원 수 300명 달성에 성공한다. 2006년 9월 조합원 300명과 자본금 3,000만 원으로 노인생활협동조합이 창립되었고 2014년 12월 현재 1,865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다.

<표 5> 원주노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요 연혁

년도	내용
2005년	9월 17일 창립준비위원회 모임 (9명)
	11월 16일 발기인대회 개최 (30명, 대표 박대진 선임)
2006년	7월 31일 창립총회 준비위원회 1차모임, 8월 10일 2차모임
	9월 1일 청립총회 (초대 이사장 손병석 선임)
	10월 2일 원주노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강원도)
2007년	3월 20일 보건복지부 지원사업 은빛택배, 대리운전사업
	4월 20일 깨끗한학교만들기사업
2008년	2월 16일 제1차 정기총회 개최
	10월 23일 사회적기업 인증 (노동부 제2008-64호)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지원사업 은빛택배, 대리운전사업 종료
2009년	2월 20일 제2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제2대 박대진이사장)
	2월23일 노동부 지원 사회적일자리 사업, 원주시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수거사업
	5월 1일 노동부 지원 경과적일자리사업 (디딤돌)
	11월 14일 노동부 지원 경과적일자리사업 종료
2010년	1월 29일 제3차 정기(대의원)총회
	2월 23일 노동부 지원 사회적일자리사업 인원조정
	4월 1일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5월 1일 직영식당 『만남의 집』 개업
2011년	2월 22일 노동부 지원 사회적일자리 종료
	2월 25일 제4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3월 1일 원주시 보조금사업 (크린콜)
	5월 1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인턴십사업』 운영기관
	12월9일 원주노인생활협동조합자회사노인생활협경비주식회사』
2012년	2월 24일 제5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6월 1일 크린콜 읍면지역 확대 33명으로 증원
	9월 1일 『노인생활협경비주식회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10월 15일 노인생활 임직원 일본 고베시 고령자협동조합 연수
2013년	3월1일 제6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2014년	3월 25일 제7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12월31일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사업 종료
2015년	1월 29일 제8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 권용원 이사장선출

출처 : 원주노인생활협동조합. 제8차 정기총회 회의자료

4) 원주 노인 생활협동조합의 방침

노인생활협동조합사업의 운영은 민주적이고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확립하여 책임 있는 경영으로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여 지역과 국가에 공헌함은 물론 공신력을 증진해 조합원의 복지와 우의를 도모하는 데 주력하고 기본방향에 입각한 기획 조직 관리 조사연구 및 교육 홍보 등을 통한 참여의식을 높이며, 건강유지를 위한 여가 및 활동을 전개한다.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조합원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로 노인들의 생활 경제적 자립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 ‘행복한 노후생활을 구현’하고자함이 목표이다(권용원.2015).

5) 원주노인 생활협동조합의 사업

원주 노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2005년 9월에 지역사회 사립고인 대성고등학교 동문 9명이 창립준비 위원회 모임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하여 2006년 10월 2일 강원도로부터 “원주 노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표 6> 원주노인협동조합의 주요사업

사업명	내용
깨끗한 학교 만들기	학교주변 정화
시니어 인턴 사업	보건복지부 일자리 지원
소독 방역 사업	보건소 위탁
크린 콜 사업	시위탁, 무단폐기물 및 뒷골목 청소
시장형 일자리	학교 내 청소
숙직, 경비 사업	아파트, 중·고등학교 대상

출처 : 원주노인생활협동조합 홍보물 (2014)

2008년 10월에는 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을 받았고 2011년 5월에 직영식당 “만남의 집”을 개업, 12월에는 자회사 “노인생활협동경비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현재 시행 중인 주요사업은 <표 6>과 같이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시니어

인턴사업”, “소독 방역사업”, “크린 콜 사업”, “시장형 일자리 사업”, “숙직·경비사업”으로 취미와 봉사를 위한 사업들도 실시하고 있다.

2014년도의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은 학교 청소사업70명, 크린콜사업 33명, 폐기물처리사업 2명, 시니어노인일자리사업에 16명 총 121명의 조합원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연매출은 12억이다.

2015년에는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취미활동, 봉사활동을 병행 할 수 있는 “굽이길” 만들기 사업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원주 노인협동조합의 추진사업은 <표 7>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 7> 원주노인협동조합의 추진사업

사업명	내용
폐자원 재활용 사업	생활폐기물 선별사업, 생활용품/교복 재활용 센터 운영
돌보미 센터 사업	보육(가정), 산후 돌보미, 간병, 노인요양(방문)돌보미
자전거 주차장 사업	대여, 수리, 무료주차장 설치
조경, 벌초사업	골프장, 묘지관리, 벌초대행
6080실버 카페	식당, 카페 등
학습지도 사업	방과후 저소득 자녀대상 학습지도
결혼이민 여성교육	전통 예절 요리법 교육
기타사업	보험 설계 대리점, 상조회사 대리점, 여행사 대리점

출처 : 원주노인생활협동조합 홍보물 (2014)

그 외로 <표 8>과 같이 노인들의 취미와 봉사활동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취미생활로 리조이스 어머니 합창단, 등산회, 걷기 동호회, 봉사사업단을 통해 배움과 즐거움이 있는 노년을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생활에 필요한 교양과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무무료 상담, 법률 무료 상담과 건강 무료 강좌의 기회가 제공된다.

<표 8> 원주노인협동조합의 취미/봉사

리조이스 어머니 합창단
노인생협 등산회
건강무료 강좌
법률무료상담
노인생협 봉사사업단
노인생협 걷기동우회
세무무료상담
노인문제 무료상담

출처 : 원주노인생활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사회 연계와 관련해서는 협력업체로 조양 병원이 협약 되어 있고 민간 기업으로는 시니어클럽과 교류가 활발하다. 원주시의 협조는 기관의 의지, 제정, 제도적 문제, 형평성 등의 문제로 금전적 지원이나 사회서비스 등 특별한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다.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의 과제로는 일자리를 기다리는 노인의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 지속가능, 급여상승 등을 들 수 있다.

2. 원주노인생활협동조합의 운영사례

1) 조사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9>와 같다. 성별은 남자 55.3%, 여자 44.7%이며, 연령대는 61~70세가 78.9%, 71~80세가 21.1%의 조합원들 대상으로 하였다.

주거형태는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이 42.1%이고 36.8%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 거주상황은 부부가 함께 사는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44.7%로 이고 고등학교 졸업이 39.4%이며, 종교는 기독교 34.2%, 불교 21.0%, 천주교 2.6%이며 그 외 다른 종교를 다니는 사람이 39.4%로 응답하였다.

사람이 55.2%로 가장 많았으며 혼자 사있는 사람이 18.4%, 자녀와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15.8%로 이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60대의 저학력자들이 원주노인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조상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수	
		명	%
성별	남	21	55.3
	여	17	44.7
연령	60세미만	0	0
	61-70세	30	78.9
	71-80세	8	21.1
	80세이상	0	0
주거형태	단독주택	16	42.1
	다세대/연립	2	5.2
	아파트	14	36.8
	기타	3	7.9
거주상황	독거	7	18.4
	부부거주	21	55.2
	자녀와거주	6	15.8
	이웃과거주	0	0
	기타	1	2.6
학력	무학	2	5.2
	초등졸	17	44.7
	중졸	2	5.2
	고등졸	15	39.4
	대졸이상	0	0
종교	기독교	13	34.2
	천주교	1	2.6
	불교	8	21.0
	기타	15	39.4

원주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의 견해에 대한 조사내용

2) 원주 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의 견해에 대한 조사내용

조합원들에게 원주 생활협동조합을 알게 된 동기에 대하여 질문하였더니 <표 10>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조합원들의 친구소개로 생활협동조합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60.5%로 가장 많은 조합원이 대답하였다. 그다음으로는 생활협동조합 직원 권유와 그 외의 이유로 알게 되었다고 대답한 사람이 각각 13.1%,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답의 결과는 대성고등학교 동문 선후배가 주축이 되어 설립된 배경으로 선후배 및 동창들과의 모임에서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전파되었을 것이다.

또한, 신문이나 TV를 통해 알게 된 동기가 5.2%로 가장 낮게 나온 이유는 노인들은 온라인이나 언론매체를 통한 전파가 요새 젊은 세대보다 늦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언론매체보다는 오프라인으로 지인들을 만나 소개받는 것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아 제주 지역에서도 노인생활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지인들을 활용하는 홍보가 필요하다.

<표 10> 원주생활협동조합을 알게 된 동기

변수	구분	빈도수	
		명	%
알게 된 동기	가족소개	3	7.8
	친구소개	23	60.5
	생협권유	5	13.1
	신문, TV	2	5.2
	기타	5	13.1

조합원들에게 노인생활협동조합에 왜 가입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더니 <표 11>과 같이 답하였다.

생계비마련을 위해서가 34.2%로 가장 많이 나왔고, 다음으로는 용돈마련이 31.5%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참여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2014년 고령자 통계(통계청, 2014)에 의하면 노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소득수준에 대

하여 불만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70.0%로인 것은 우리나라의 노인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경제 고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인들의 욕구가 가장 강한 것으로 이러한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인 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은 필요하다.

<표 11> 원주생활협동조합에 가입한 이유

변수	구분	빈도수	
		명	%
가입한 이유	생계비마련	13	34.2
	용돈마련	12	31.5
	사회참여수단	2	5.2
	건강유지수단	5	13.1
	여가시간활용	3	7.8

원주 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의 가입 기간은 <표 12>와 같이 대답하였다. 2006년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이 13.1%, 3년 이상 가입한 조합원은 34.2%로 가장 많았으며, 장기적으로 조합원으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지속적인 일자리 활동을 하는 조합원이 많았다. 여기서 1년 미만의 조합원이 26.3%인 것을 보면 새롭게 가입하는 조합원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원주의 노인들이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을 신뢰하고 일 자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세계적으로도 협동조합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과 같이 제주 지역사회에도 노인생활협동조합의 가능성을 조 심히 예측해 볼 수 있다.

<표 12> 원주생활협동조합에 조합원들의 가입 기간

변수	구분	빈도수	
		명	%
가입기간	설립때부터	5	13.1
	1년미만	10	26.3
	1년-2년	1	2.6

	2년-3년	7	18.4
	3년이상	13	34.2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에서 사업에 계속 참여하는 이유는 <표 13>과 같이 63.1%가 경제적인 이유로 대답하였다. 그다음은 건강유지 21.0%, 일에 대한 즐거움이 10.5%, 사회적으로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람이 2.6%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 내용은 노인생활협동조합이 노인들의 경제적 문제에 해결 방법의 대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3> 조합원들이 생활협동조합활동을 계속하는 이유

변수	구분	빈도수	
		명	%
생활협동활동을 계속하는 이유	친목	0	0
	경제적	24	63.1
	즐거움	4	10.5
	건강유지	8	21.0
	사회기여	1	2.6

조합원들이 원주생활협동조합으로부터 탈퇴에 대한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가 42.1%이고, 건강이 악화하여 탈퇴하게 되는 경우는 31.5%, 일자리에서 얻는 수입이 적어서 탈퇴하는 경우가 21.0%, 일에 대한 적성이 맞지 않아서 탈퇴하게 되는 경우는 2.6%로 나타난 것은 조합원들이 노인생활협동조합에서 활동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되며 지속적인 일자리 참여로 건강도 관리할 방법도 필요하다.

<표 14> 원주생활협동조합을 그만 둔다면 그 이유

변수	구분	빈도수	
		명	%
그만둔다면 그 이유	건강악화	12	31.5
	수입이 적어서	8	21.0
	일이 적성에 안맞아서	1	2.6

	생각해본 적 없다	16	42.1
	조합원과 불화	0	0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이 참가하는 사업의 수는 1가지인 경우가 52.6%, 2가지는 23.6%이며 3가지와 4가지는 각각 7.8%로 나타났다.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사업은 주로 공공근로 수준이며, 지속가능 하지 못해 일정 기간 참여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 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표 15> 원주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의 참가 사업 수

변수	구분	빈도수	
		명	%
참가 사업수	1가지	20	52.63
	2가지	9	23.6
	3가지	3	7.8
	4가지	3	7.8
	5가지이상	0	0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에 실시하고 있는 사업 중 가장 만족스러운 사업으로는 학교청소 사업이 42.1%, 클린콜 사업이 39.4%, 지역사회복지 사업이 10.5%, 직영 식당인 만남의 집 사업이 5.2%로 나타났다. 이는 원주노인생활협동조합의 설립 후 1년이 지난 2007년부터 지금 까지 지속되고 있는 학교청소사업이 확대되면서 클린콜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며, 원주노인생활협동조합의 성공한 사업의 예로 들 수 있다. 이렇게 지속가능한 양질의 사업을 창출하는 것이 노인생활협동조합의 과제이다.

<표 16> 원주생활협동조합에 만족스러운 사업

변수	구분	빈도수	
		명	%
생협에	학교청소사업	16	42.1
만족스러운 사업	취미교실	0	0

	클린콜사업	15	39.4
	경비사업	0	0
	지역사회복지사업	4	10.5
	만남의집	2	5.2

조합원들이 원주 생활협동조합에서 가입하여 활동 후 일에 대한 보람과 경제적 도움이 각각 28.9%로 가장 많이 변화되었다고 답변하였으며, 그다음으로는 건강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사람이 18.4%, 인간관계 형성이 원활해졌다가 10.5%, 외로움과 고독감이 감소한 경우가 7.8%로 나타났다. 노인이 경제활동은 단순히 금전적 도움만 되는 것이 아니므로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은 노인 사회복지 차원으로 접근하여 다양한 노인 문제를 함께 풀어 가도록 접근해야 한다.

<표 17> 원주생활협동조합 활동 후 변화

변수	구분	빈도수	
		명	%
활동 후 변화	건강증진	7	18.4
	외로움 고독감 감소	3	7.8
	일에 대한 보람	11	28.9
	인간관계형성	4	10.5
	경제적도움	11	28.9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이 보다 나은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역 사회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36.8%로 가장 많았으며, 노인생활협동조합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31.5%, 공동작업장 개설이 되었으면 하는 사람이 23.6%, 조합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지역사회에 기관과 연계하기 위한 전문가를 고용하였으면 하는 의견이 2.6%, 와 더불어 조합비 증액에 찬성하는 경우도 2.6%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노인 일자리 창출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음과 동시에 지역사회가 노인생활협동조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직은 시기상조인 제주지역의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노인생활협동조

합의 인식과 필요성을 제주 지역사회에 홍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표 18> 원주생활협동조합 일자리 창출의 과제

변수	구분	빈도수	
		명	%
생협 일자리창출의 과제	전문가고용	1	2.6
	지역사회지원	14	36.8
	공동작업장개설	9	23.6
	조합비증액	1	2.6
	생협 홍보	12	31.5

원주 지역사회 내에서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의 가입을 권유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78.9%로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신뢰도가 높음을 알 수 있고, 권유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15.6%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노인생활협동조합의 가치와 함께 노인들 스스로 노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을 알 수 있고 앞으로 노인 문제의 대안임을 알 수 있다.

<표 19> 원주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 가입 권유

변수	구분	빈도수	
		명	%
생협 조합원 가입 권유	적극권유	13	34.2
	권유	17	44.7
	권유안함	0	0
	적극권유안함	3	7.8
	모름	3	7.8

우리나라의 유일한 노인생활협동조합인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이 동네에서 성공한 사례로 활성화가 된 이유를 조합원들은 지역사회 협조가 잘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34.2%, 조합원이 적극적인 참여로 인하여 활성화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23.6%, 경제적으로 수입창출이 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13.1%, 조합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 다양하여 일자리가 많다고 응답한 사람이 18.4%, 원주 노인

생활협동조합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이 운영을 잘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0.5%로 나타났다. 노인생활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조합원들의 경제·문화·사회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이다. 그러나 조사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성공사례가 된 이유가 지역사회협조 때문이라는 응답이 조합원이 잘해서라는 응답보다 많은 것은 조금 아쉽다.

<표 20> 원주생활협동조합이 활성화된 이유

변수	구분	빈도수	
		명	%
생활이 활성화된 이유	조합원이 잘해서	9	23.6
	일자리가 많아서	7	18.4
	지역사회협조가 잘되서	13	34.2
	직원들이 잘해서	4	10.5
	돈벌이가 잘되서	5	13.1

3) 원주노인생활협동조합 직원의 견해

제주지역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설립 필요성을 알아보려고 국내 사례를 연구하기 위하여 조사자는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 동안 원주를 방문하였다. 원주에서 도의원을 하신 지인이 계셔서 수월하게 사례연구를 할 수 있었다.

먼저 원주노인생활협동조합을 방문하여 약 하루 동안 권용원 이사장과 최종남 사무국장으로 부터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설립부터 현재까지의 활동과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 과제에 대한 견해를 들을 수 있었다.

원주시가 협동조합의 도시라는 평가 받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도농복합도시인 원주시가 서울과 가까워서 문화 수준이 높고 교통이 사통팔달 되어 외부로부터 인구 이동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둘째, 원주시에 거주하는 인구 중 오랫동안 뿌리 내려 사는 토박이들이 많지 않아 텃세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뭉치려는 힘이 작용하여 협동조합이 활성화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설립 동기와 설립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질문에 답변이다.

“원주에서 노인생활협동조합이 생겨난 것은 원주신협이 모태가 되었고 노인생활협동조합을 창립하려고 협동조합에서 활동하던 박태진 설립추진위원장이 일본을 방문한 기회가 있었는데 노인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이 일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하고 시작 됐지. 2005년 9월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이 원주노인협동조합의 시작이 예요”(권용원 이사장)

“처음 시작은 원주시에 사립고인 대성고등학교 동문 선·후배들과 원주신협이 모체가 되어 미친 듯이 노인생활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매달렸죠”(박종남 사무국장)

“모든 것을 희생한 발기인들은 어렵게 모집한 300명의 조합원과 자본금 3,000만 원으로 드디어 2006년 10월 2일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강원도로부터 인가를 받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원주 노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노인생활협동조합”) 이예요“(권용원 이사장)

다음은 지금까지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어떤 위기가 있었는지의 질문의 답변이다.

“처음 시작에는 설립인가에만 고심하다 보니 일자리 창출에 심각한 문제를 예상하지 못해 위기를 맞기도 했는데 기적같이 2007년에 원주교육청으로부터 초등학교 청소업무를 맡게 되면서 오늘까지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자립기반이 만들어진 거예요”(권용원 이사장)

2007년 시작한 학교청소사업은 지금까지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주요사업으로 지속하고 있다. 2015년 현재 창립 당시 조합원 300명 중에 사망자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으로 존속하고 있고 2014년 년 매출은 12억으로 13가지 사업을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애로사항과 과제에 대한 답변이다.

“우리 조합의 어르신들의 문제는 일자리에 대한 대기상태가 큰 문제인데, 노인들이 “일자리 안 나왔느냐”고 전화가 수시로 오는데 어떤 분은 막 화를 내기도 해요”
(박종남 사무국장)

“우리 노인생활협동조합에서는 앞으로 숙제가 양질의 일자리, 지속해서 가능한 일자리, 급여가 상승해서 어르신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는게 해야 될 일이에요”(박종남 사무국장)

“일자리 문제는 경제에만 맞추지 말고 다양하게 봐야 돼요. 무슨 말이나 하면, 노인의 고통을 경제에만 맞추지 말고 노인4고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제주도의 “올레길”을 모델로 해서 원주에서는 “굽이길”을 만들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굽이길”을 만드는데 우리 조합 노인들을 인력 활용도 하고 또 ‘굽이길’ 해설사로 역할도 하고 건강하게 “굽이길”도 걷고 이렇게 노인들에게 일자리와 다양한 만족을 느끼게 해줄려고 하죠.”(박종남 사무국장)

“우리 조합의 가장 애로사항은 경제적문제로 전문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사회복지 경영 마인드로 접근해야죠.”(박종남 사무국장)

다음은 제주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설립에 대한 권용원 이사장의 제언이다.

“첫째, 발기인이 누가 되느냐? 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1-2년 동안 모든 걸 희생하고 이끌어 갈 사람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권용원 이사장)

“ 둘째, 인가되기 전에 사업계획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기관의 협조는 기대하기

어렵고 자립만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권용원 이사장)

“셋째, 전문성을 가진 회계담당이 확실히 있어야 해요. 노인생활협동조합에 미친 사람 3명만 있으면 성공 할 수 있어요.”(권용원 이사장)

“오늘 현재까지 원주노인생활협동조합을 찾은 방문자는 800명이고 교육이수자는 8,000명이 되었지만, 아직도 타 지역의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창립 소식은 없어요. 제주에서 꼭 제2호 노인생활협동조합이 창립되길 바랍니다(박종남 사무국장)

제주지역에 노인생활협동조합이 창립된다면 설립을 위한 노하우와 환경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IV. 제주지역 노인생활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

제주지역 노인생활협동조합 설립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4월 20일에 일차적으로 제주도에 거주하는 지인 중 30명 노인을 대상으로 표본 링을 했다, 그다음에는 5월 2일부터 5월 26일까지 제주시 8개 경로당과 2곳의 아파트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회원 등 170명을 200명을 대상으로 노인생활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고 그 중 총 191부를 회수하여 조사연구를 하였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1>과 같다.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남녀 구성비를 살펴보면, 여성이 69.1%로 남성보다 약간 많았다. 연령대는 71~80세가 가장 많은 41.9%이며 그다음으로 61~70세가 40.3%로 근사하게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거주상황은 56.0%로 과반수가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최종학력은 고등학교를 졸업이 32.5%가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중학교 졸업이 26.2%, 대학 졸업 19.9%이며 초등학교 졸업 18.3%, 순이었다. 70대가 주를 이루는 조사대상자 중 무학은 3.1%로 아주 낮게 조사되었고 대부분 학력이 높은 정도로 조사되었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6.8%이고,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83.2%로 노인 일자리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생활협동조합에 대하여 인지하고 하는 노인의 수가 38명으로 약 19.9%이고, 80.1%의 153명의 대부분 사람이 생활협동조합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았다. 조사대상자들이 학력이 높은 편인 것에 비하면 노인생활협동조합을 모른다는 응답으로 보아 협동조합이라는 형태의 기업이 아직은 활성화되어있지 않음을 알 수 있고 특히 일반사람들이 알고 있는 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이나 농협 협동조합 등 공동구매 및 판매 공동마케팅으로 비용 절감하는 정도로 알고 있으나 노인생

활협동조합은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 안에서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생소하고 우리나라의 30년 된 협동조합 역사에도 유일하게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 뿐이고 설립된 기간이 8년 이어서 제주지역 노인들이 알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제주 노인협동조합의 설립에 앞서 제주 지역사회 홍보와 노인 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을 위한 연구가 꾸준히 필요하다.

<표 2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조사 내용

변수	구분	빈도수	
		명	%
성별	남	59	30.9
	여	132	69.1
연령	60세미만	20	10.5
	61-70세	77	40.3
	71-80세	80	41.9
	80세이상	14	7.3
거주상황	독거	43	22.5
	부부거주	107	56.0
	자녀와거주	39	20.4
	이웃과거주	2	1.0
	기타	0	0
학력	무학	6	3.1
	초등졸	35	18.3
	중졸	50	26.2
	고등졸	62	32.5
	대졸이상	38	19.9
거주지역	제주시지역	176	92.1
	서귀포 지역	6	3.1
	기타	9	4.7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예	32	16.8
	아니오	159	83.2
생활협동조합 알고있는가	예	38	19.9
	아니오	153	80.1

2. 조사대상자의 일상생활 분석 결과

조사대상자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조사 분석은 <표 22>와 같다. 나이에 비해 건강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85.3%로 제주가 장수의 섬이라는 것이 입증되며 제주의 노인들은 자신도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조사 되었다.

그리고 경제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이 75.9%와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이 71.2%로 조사되었고, 직업이 주어지면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84.3%로 취업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을 나타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정부 주도의 노인 일자리사업은 1년 중 9개월 활동으로 월 20만 원에 그치고 있어 노인들에게 소득원을 제공하는 일자리 갖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에서 토론회나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66%로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관 주도 교육에 관심이 많으며 직접 참여하는 인원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77%가 우울하거나 슬플 때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노년에 찾아오는 상실감이 크게 작용 있음을 나타낸다.

김은혜(2010)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들의 일자리사업 참여는 우울감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노인생활협동조합 참여는 단순한 경제적 활동을 넘어 사회적 활동 및 관계 형성되고 이를 통해 노인들이 자신감을 느끼게 되면서 우울감 해소와 동시에 활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78.6%로이고 가족과 친구들이 있어 외롭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이 81.2%,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30.9%가 ‘그렇지 않다’라고 조사 되었다.

이와 같은 조사내용으로 보아 제주의 노인들은 경제 정도는 보통이나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으며 일하고자 하는 욕구는 매우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주 지역에는 예로부터 농사와 물질을 통해 살아온 여성노인들이, 지금도 고령인 나이에도 농사일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도시로 진출하면서 농촌에는 거주하는 인구가 줄고, 농사 인력이 모자라면서 도시의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농사인력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농사인력으로 동원되는 노인들은 장기적으로 노동에 참여하는 것이 건강상 쉽지 않으며, 그나마 도시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공공근로 수준의 일자리 참여에 머물고 있다. 그러므로 제주 지역 노인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다.

<표 22> 조사대상자의 전반적 사항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이에 비해 건강하다	3 (1.6)	25 (13.1)	86 (45.0)	61 (31.9)	16 (8.4)
경제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	6 (3.1)	40 (20.9)	47 (24.6)	82 (42.9)	16 (8.4)
경제적 상황이 좋은 편이다	7 (3.7)	47 (24.6)	96 (50.3)	26 (13.6)	15 (7.9)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있다	40 (20.9)	96 (50.3)	30 (15.7)	23 (12.0)	2 (1.0)
직업이 주어지면 취업하고 싶다	7 (3.7)	23 (12.0)	43 (22.5)	103 (53.9)	15 (7.9)
지역에서 토론회나 교육에 참여한다	10 (5.2)	55 (28.8)	32 (16.8)	91 (47.6)	3 (1.6)
우울하거나 슬플 때가 있다	10 (5.2)	34 (17.8)	79 (41.4)	62 (32.5)	6 (3.1)
지금 삶이 만족스럽다	13 (6.8)	28 (14.7)	97 (50.8)	46 (24.1)	7 (3.7)
가족과 친구가 있어 외롭지 않다	12 (6.3)	24 (12.6)	64 (33.5)	84 (44.0)	7 (3.7)
미래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불안하다	8 (4.2)	59 (30.9)	48 (25.1)	57 (29.8)	19 (9.9)
사회활동이나 여가생활의 기회가 많다	8 (4.2)	27 (14.1)	78 (40.8)	71 (37.2)	7 (3.7)
국가의 복지서비스를 충분히 받고 있다	12 (6.3)	67 (35.1)	71 (37.2)	29 (15.2)	12 (6.3)

3. 노인생활협동의 참여 의사 관련 분석 결과

노인생활협동조합에 참여 의사와 관련한 사항의 조사 내용은 <표 23>과 같다. 노인생활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 참여하겠다고 사람이 120명으로 62.8%로 응답한. 노인생활협동조합에 참여하였을 경우 출자를 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65명으

로 34.0%이고, 출자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63명으로 33.0%가 응답하였다. 그리고 노인생활협동조합에 참여는 하나 경제적 여유가 없어 출자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42.9%로 나타났으며, 활성화가 잘 안 될 것 같아 출자하지 않겠다고 27.3%이다. 이와 같은 조사 내용은 것은 노인생활협동조합의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며 노인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조합원들의 출자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숙제를 안겨 주고 있다. 이러한 숙제를 해결 위한 방안으로 지역사회의 언론을 활용한 홍보 방법과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하여 제주 노인생활협동조합 설립 필요성과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운영체계를 사전에 파악하고 제주 지역사회로부터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의 조사 내용은 노인생활협동조합에 참여하면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응답한 사람이 42.4%이며,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응답한 사람이 70.1%, 노후 삶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응답한 사람이 75.4%이고,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응답한 사람이 60.2% 조사되었다. 제주 지역의 노인들은 일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노후의 삶에 크게 되고 제주 지역사회에도 일조하는 것으로 보아 제주 지역사회에 노인들에게 제공 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사회와 연계한 공동작업장을 만들고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설립으로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노인 생활협동조합에 참여하면 가족들이 찬성한다고 55.5%가 응답하였으며, 주변에 권유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63.3%로 나타났으며 노인생활협동조합은 설립과 함께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꾸준한 조합원 활동과 조합원의 증원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들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매체를 통한 정보교환보다 신문, TV, 또는 지인들을 통해 구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매체를 통해 노인생활협동조합의 꾸준히 운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 23>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참여의사에 관한 조사 내용

문항	전혀 그렇 지않 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노인 생협이 만들어지면 참여하겠습니까?	0 (0)	18 (9.4)	53 (27.7)	101 (52.9)	19 (9.9)
노인 생협에 참여하면 출자하겠습니까?	7 (3.7)	56 (29.3)	63 (33.0)	63 (33.0)	2 (1.0)
노인 생협에 참여하면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2 (1.0)	37 (19.4)	71 (37.2)	76 (39.8)	5 (2.6)
노인 생협에 참여하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1 (0.5)	6 (3.1)	50 (26.2)	128 (67.0)	6 (3.1)
노인 생협에 참여하면 노후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0 (0)	5 (2.6)	42 (22.0)	13 (68.1)	14 (7.3)
노인 생협에 참여하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1 (0.5)	19 (9.9)	56 (29.3)	88 (46.1)	27 (14.1)
노인 생협에 참여하면 가족들이 찬성할 것 같습니까?	3 (1.6)	34 (17.8)	48 (25.1)	88 (46.1)	18 (9.4)
노인 생협에 참여하면 주변에 권유를 하시겠습니까?	1 (0.5)	14 (7.3)	55 (28.8)	111 (58.1)	10 (5.2)
노인 생협에 참여는 하나 출자하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인가요?	15 (7.9)	58 (30.4)	36 (18.8)	80 (41.9)	2 (1.0)
노인 생협에 참여는 하나 출자하지 안하는 이유는 잘 될 것 같지 않아서 인가요?	7 (3.7)	61 (31.9)	71 (37.2)	49 (25.7)	3 (1.6)

4. 참여 이유와 참여 사업에 관한 조사 분석

노인생활협동조합에 취업한다면 용돈마련을 위한 사람이 35.6%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생계비 마련 22.0%, 건강유지 19.9%, 자아실현 12.6%이며 여가시간 활용에 대한 응답이 9.9%로 조사되었다. 노인생활협동조합 설립의 필요성은 노인의 경제적 문제의 해결이 가장 우선이다. 그리고 그 해결방안은 노인 일자리

창출이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 주도의 공공근로 형태의 노인 일자리 사업보다는 자조, 자립, 협동을 바탕으로 노인들의 힘과 지혜로 노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노인생활협동조합 설립으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으로 제주 지역의 노인 문제 해결과 지역사회에 일조하는 것이다.

취업 일자리 유형은 여가활용형 사업이 42명(22.0%)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공익형 사업과 복지형 사업이 39명(20.4%), 시장형 사업이 32명(16.8%), 인력과 견형 사업은 12명(3.6%), 교육형 사업이 27명(14.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 내용은 공공근로 형태의 일자리 조사여서 아쉬움이 있다. 경제적인 노인 문제가 가장 해결해야 과제인 것은 세계 공통의 문제이다. 이러한 노인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안으로 제시한 제주 지역의 노인생활협동조합이 설립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동작업장과 같은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사업과 제주 지역의 노인들에 욕구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표 24> 참여이유와 참여 사업에 관한 조사 내용

변수	구분	빈도수	
		명	%
취업을 한다면 무엇때문인가	생계비마련	42	22.0
	용돈마련	68	35.6
	건강유지	38	19.9
	자아실현	24	12.6
	여가 시간 활용	19	9.9
취업한다면 어떤사업에 참여하겠습니까	공익형 사업	39	20.4
	교육형 사업	27	14.1
	복지형 사업	39	20.4
	시장형 사업	32	16.8
	인력과견형 사업	12	6.3
	여가활용형 사업	42	22.0

V.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생활협동조합의 기능과 역할을 알아보고 제주 노인생활협동조합 설립의 필요성과 설립과정에 문제점을 연구하여 제주 노인생활협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인들의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생활협동조합의 긍정적인 사회적 관심과 지역사회 노인복지에 이바지하고 차후 노인생활협동조합의 발전적인 활동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만들어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그중에 191부의 설문지를 수집하고 제주지역 노인의 전반적 사항과 노인생활협동조합과 관련하여 설문으로 조사하고 제주지역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설립에 대한 연구의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위에서 연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 지역에 양질의 지속가능한 노인 일자리 창출이 절실히 요구된다. 제주의 노인문화를 반영한 제주지역 노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도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지역 어르신들에게 그 효과가 정확히 나타날 것이다. 지역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참여 노인의 성실한 참여와 해당 지역 기관들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일자리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의 역할도 중요하다. 매년 수립하는 사업 기본계획이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우수 일자리 아이템이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직업을 주면 취업하고 싶다 61.8%, 노인생활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62.8%로 제주 지역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에 욕구가 높다.

61~70세, 70~80세 모두 합친 인원이 82.2%, 노인생활협동조합을 모른다는 답변이 80.1%.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경우가 80.2%, 노인생활협동조합 참여가 건강에 도움 될 것 같다 70.1%, 노후의 삶에 도움 될 것 같다 75.4%, 지역사회

회에 도움이 될 것 같다 60.2%로 일자리가 주어지면 돈을 벌 수 있으므로 노인 빈곤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생활방식으로 변화됨에 따라 활기찬 노후생활이 증가하는 효과고 일자리 참여가 건강유지에 도움이 되어 병원 가는 횟수가 줄어들어 의료비가 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다.

둘째, 노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조직을 결성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한 노인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한국 노인인력개발원, 광역 및 기초지자체,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의 관 주도로 진행했다.

2014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제주 노인 일자리 사업에 책정한 총예산은 8,826백만원(보건복지부, 2014), 민간 주도의 조직체를 결성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협동조합의 정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다(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원의 출자가 이루어져야 재정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생활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 출자 하겠다가 34%,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42.9%로 노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조직을 결성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제주 지역 노인 일자리 해결을 위한 대안을 지역사회에 널리 홍보가 필요하다.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조합원의 경제·문화·사회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이다. 또한, 협동조합의 가치는 자조, 자기 책임, 민주, 평등, 형평성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며, 조합원은 협동조합 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한다.

협동조합의 특성은 자치적인 조직이며,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직이고, 조합원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생활협동조합을 알고 있는가의 질문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80.1%, 로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을 위해서는 먼저 언론매체나 지역사회 토론회 등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 볼 때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지역의 노인 자활을 도우려는 방법으로 제주 노인생활협동조합 설립이 필요하다. 제주 지역의 노인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안으로 제시한 제주 지역의 노인생활협동조합이 설립은 관 주도의 공공근로 형태의 일자리 사업을 지향하고 민간주도의 사업으로 노인의 참여하는 사업개발과 사업방식을 달리해야 한다.

노인생활협동조합을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에는 먼저 지자체 공공 부분 사업의 우선 위탁과 민간기업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참여하는 노인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맞춤형 사업을 설계하는 방안과 지역 사회와 연계한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도 필요하다.

둘째, 제주 지역의 노인생활협동조합 설립 시 조합원들의 출자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제주 노인생활협동조합 설립 시 출자와 관련한 질문 내용 중 출자하겠다는 응답은 34%이고 출자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66%이다. 이러한 조사 내용으로 보면, 제주지역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을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출자할 재원 마련이 중요한 문제이다.

협동조합의 운영은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출자금으로 운영된다. 협동조합은 혼자 이룰 수 없는 자치나 목적을 위해 부족한 능력을 모으는 수단으로, 무상의 지원에 의지하지 않아야 하므로 조합원 간에 소통과 연대의식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경영의 자립능력을 갖추는 것이 시장 주위의 경쟁에서 존립 방법이다. 제주 지역의 노인생활협동조합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노인 스스로 하도록 조달 방법을 각자 개인의 여건에 맞게 현물로 내도록 하거나, 또는 조합비를 나누어 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셋째, 제주 지역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을 위한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협동조합의 설립은 세계적 추세이며, 2014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4,879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지만 아직은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지역사회 노인복지를 사회적 경제의 대안으로 창립된 노인생활협동조합은 유일하게 하나뿐인 원주 노인생활협

동조합이다.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사회의 언론을 활용한 홍보 방법과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하여 제주 노인생활협동조합 설립 필요성과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운영체계를 사전에 파악하고 제주 지역사회로부터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노인생활협동조합은 설립과 함께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꾸준한 조합원 활동과 조합원의 증원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들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매체를 통한 정보교환보다 신문, TV, 또는 지인들을 통해 구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매체를 통해 노인생활협동조합의 꾸준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고승환, 이소정.(2014). 「고령사회도래에 따른 노후생활 안정화 전략과 대응과제」, 제주발전연구원.
- 고재욱.(2007). 「노인고용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구자근.(2014).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김구슬.(2014).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사회경제적 효과」.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김상희.(2003). 「자생적 생활협동조합의 정착 요인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 김은임.(2000). 「지역사회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김진영, 김남진.(2009). 「제주지역 노인의 여가 활동 조사연구」, 제주대학교.
- 노현오.(2015). 「노인 일자리사업의 참여요인 분석 및 노인일자리 정책효과성 분석」,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박용국.(2013). 「노인일자리 통계 동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박용국.(2015). 「시장자립형 노인 일자리 사업 정책효과 분석」,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변정원.(2009). 「지역사회 노인생활협동조합의 노인복지 기여에 관한 경험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박양희.(2000). 「생활협동조합에의 지역사회조직원칙 적용에 관한연구」.석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
- 손홍길.(2013). 「생활협동조합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 신명호, 이아름.(2013). 「원주지역협동조합의 생성과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오은주, 김선기.(2002).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원종욱외 15.(2012). 「협동조합 해외 출장 보고서」. 기획재정부.
- 원종욱외 7.(2012). 「협동조합 기본법 도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기획재정부.
- 원주 협동사회 경제네트워크 사례 소개자료.
- 원주 협동사회 경제네트워크.
- 원주 협동조합 운동의 역사와 전망.
- 원주 협동조합 운동의 역사와 원주협동사회 경제네트워크 - 박준영 한 살림소비자협동조합 사무국장.
- 원주 노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2014). 「원주 노인생활의 오늘과 내일」.원주 노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원주 노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2015). 「제8차 정기(대의원)총회 회의자료」, 원주 노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원향숙.(2007). 「지역사회복지활성화를 위한 지역협동조합운동연구」.석사학위논문, 상지대학교.
- 이미연.(2008). 「지역생활협동조합 성장단계 및 그 특징과 과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공회대학교.
- 이재석.(2005). 「도·농 교류형 생활협동조합의 공동체적 특징에 관한연구」.석사학위논문, 안양대학교.
- 이채민.(2010). 「물류통합에 따른 생활협동조합의 성격변화」.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장현정.(2012).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사회적 연결감과 유기농 식품의 구매의도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최영근.(2014). 「제주지역 소비자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 최영근.(2014). 「제주지역 협동조합 현황과 향후 과제」. 제주발전연구원.

ABSTRACT

A study on the needs for establishment of The Jeju Elderly
Cooperative Association

Lee Hee Ok

This study has an aim to create jobs for the elderly in Jeju. Becoming aging society with a low birth rate is not only causing the problem of the elderly but of the entire society. Consequently, it influences to the economy and the continued existence of the nation.

Issues for the elderly such as health, money for living, and unemployment are looming large in an unprepared aging society in Korea. Especially, having no pension plan for the elderly is exposed to lead to crimes after their retirements with isolation and poverty. Jeju's elderly welfare issues are differ from other areas in Korea due to Jeju's unique cultures in the old, and it is necessary to approach in a new viewpoint.

To settle the issues, to create jobs, and to nurture a better culture for the elderly, this study is focus on establishing The Jeju Elderly Cooperative Association. The Association plays roles of searching culture and living for senior citizens in Jeju, and finding the solution to get them financially independent to continue their lives.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제주지역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연구”을 주제로 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진실한 응답은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조사된 내용은 반드시 조사와 연구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조사자: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이희옥
- 연락처: 010-3693-1520

I. 다음은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항목에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1, 성별	① 남 ② 여
2, 연령	① 60세미만 ② 61-70세 ③ 71-80세 ④ 80세이상
4, 주거형태	① 단독주택 ② 다세대/연립 ③ 아파트④ 기타
5, 거주상황	① 독거 ② 부부거주 ③ 자녀와 거주 ④ 이웃과 거주 ⑤기타
6, 최종학력	① 무학 ② 초등졸 ③ 고졸 ④ 대졸이상
7, 종교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기타

II. 다음은 원주노인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의 기본적 견해에 대한 내용의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 1, 생활협동조합을 알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① 가족소개 ② 친구소개 ③ 생협 권유 ④ 신문,TV
⑤ 기타()
- 2, 생활협동조합에 가입한 이유 무엇인가요?
① 생계비마련 ② 용돈마련 ③ 사회참여수단
④ 건강유지수단 ⑤ 여가시간활용
- 3, 생활협동조합에 가입 한 기간 무엇인가요?
① 설립때부터 ② 1년 미만 ③ 1년-2년 ④ 2년-3년
⑤ 3년이상
- 4, 생활협동조합 활동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 친목때문 ② 경제적 이유 ③ 즐거움 ④ 건강유지
⑤ 사회기여
- 6, 생활협동조합 활동을 그만둔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 건강악화 ② 조합원과 불화 ③ 수입이 적어서
④ 일이 적성에 안맞아서 ⑤ 생각해본 적 없다
- 7, 생활협동조합에서 몇 가지 사업에 참여 했나요?
① 1가지 ② 2가지 ③ 3가지 ④ 4가지 ⑤ 5가지이상
- 8, 생활협동조합에 가장 만족스러운 사업은 무엇인가요?
① 학교청소사업 ② 취미교실 ③ 클린콜사업 ④ 경비사업
⑤ 지역사회 복지사업 ⑥ 만남의집
- 9, 생활협동조합 활동 이후 생활의 변화는 무엇인가요?
① 건강증진 ② 외로움고독감감소 ③ 일에 보람
④ 인간관계형성 ⑤ 경제적 도움
- 10, 생활협동조합의 일자리 창출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① 전문가 고용 ② 지역사회지원 ③ 공동장업장 개설
④ 조합비 증액 ⑤ 생활협동조합 홍보
- 11, 생활협동조합에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시겠습니까?
① 적극권유 ② 권유 ③ 권유안함 ④ 적극권유안함 ⑤ 모르겠다
- 12, 원주생활협동조합이 활성화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① 조합원들이 잘해서 ② 일자리가 많아서
③ 지역사회가 협조가 잘돼서 ④ 직원들이 잘해서
⑤ 돈벌이가 잘되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제주지역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연구”을 주제로 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진실한 응답은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조사된 내용은 반드시 조사와 연구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조사자: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이희옥
- 연락처: 010-3693-1520

I. 다음은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항목에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1. 성별	① 남 ② 여
2. 연령	① 60세미만 ② 61-70세 ③ 71-80세 ④ 80세이상
4. 거주상황	① 독거 ② 부부거주 ③ 자녀와 거주 ④ 이웃과 거주 ⑤ 기타
5. 최종학력	① 무학 ② 초등졸 ③ 중졸 ④ 고졸 ⑤ 대졸이상
6. 거주지역	① 제주시 ② 서귀포시 ③ 기타
7. 지금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요
8. 생활협동조합을 알고계신가요?	① 예 ② 아니요

II. 다음은 응답자의 “전반적 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이에 비해 건강하다					
2	경제문제를 스스로 해결 한다					
3	경제적 상황이 좋은 편이다					
4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다					
5	직업이 주어지면 취업하고 싶다					
6	직역에서 토론회나 교육에 참여 한다					
7	우울하거나 슬플 때가 있다					
8	지금 삶이 만족스럽다					
9	가족과 친구가 있어 외롭지 않다					
10	미래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불안하다					
11	사회활동이나 여가생활의 기회가 많다					
12	국가의 복지서비스를 충분히 받고 있다					

Ⅲ. 다음은 능력만큼 출자하여 일자리를 만드는 노령사회사업, 즉 노인생활협동조합(이하“노인생협”)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노인 생협이 만들어지면 참여하겠습니까?					
2	노인 생협에 참여하면 출자하겠습니까?					
3	노인 생협에 참여하면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4	노인 생협에 참여하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5	노인 생협에 참여하면 노후에 삶에 도움이 될 것 습니까?					
6	노인 생협에 참여하면 지역사회에 도움 될 것 같습니까?					
7	노인 생협에 참여하면 가족들이 찬성할 것 같습니까?					
8	노인 생협에 참여하면 주변에 권유 하시겠습니까?					
9	노인 생협에 참여는 하나 출자하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인가요?					
10	노인 생협에 참여는 하나 출자하지 않는 이유는 잘 될 것 같지 않아서 인가요?					

IV. 다음은 일자리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

1. 취업을 한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 ① 생계비마련 ② 용돈마련 ③ 건강유지
- ④ 자아실현 ⑤ 여가시간활용

2. 취업 한다면 어떤 사업에 참여하시겠습니까?

- ① 공익형 사업 ② 교육형 사업 ③ 복지형 사업
- ④ 시장형(예:식당) 사업 ⑤ 인력파견형 사업
- ⑥ 여가활용형 사업